

한국영화 관객 7년 연속 1억명 돌파

작지만 내실 있는 영화들 흥행 이변 시리즈물·리메이크·여성영화 강세

외화 포함 전체 관객 2억명 넘을 듯

올해도 한국영화계는 다사다난했다. 1000만 관객 영화 세 편을 배출했는가 하면, 작지만 내실 있는 영화들이 '흥행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참신함 없이 기존 흥행 공식을 답습한 대작 영화들은 외면받았다.

올해 한국영화 관객은 11월 30일 기준 1억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한국영화 관객은 2012년 1억1461만명을 시작으로 7년 연속 1억명대를 기록했다.

외화를 포함한 올해 연간 전체 관객 수는 1일 기준 1억9545만명으로 연말까지 2억1500만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시리즈물·리메이크·실화 강세
올해 연간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면 시리즈물이 단연 강세였다.

'신과함께-인고연' (1위),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2위), '미션임파서블: 폴아웃' (3위), '신과함께-죄와 벌' (4위), '주라기월드: 폴른 킹덤' (5위), '엔트렌과 와스프' (6위), '블랙팬서' (8위) 등 10위권에 프랜차이즈 영화 7편이 포함됐다.

'신과함께' 1, 2편과 '어벤져스: 인피니티워'는 1000만 관객을 넘었다. 이를 포함해 흥행 상위 5편이 올해 11월까지 누적 관객 22%를 가져갔다.

원작이 있는 리메이크 영화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탈리아 동명 영화가 원작인 '완벽한 타인', 홍콩 두차평 감독의 '마약전쟁'을 리메이크한 '독전' (506만명), 동명 일본 영화를 각각 한국 버전으로 바꾼 '지금, 만나러 갑니다' (260만명), '리틀 포레스트' (150만명)도 호응을 얻었다.

강동원 주연 '골든 슬럼버', 김지운 감독 신작 '인랑'은 일본 원작을 바탕으로 했고, '사라진 밤'과 오는 5일 개봉을 앞둔 '도어락'은 스페인 영화를 각색한 작품이다.

영화계 관계자는 "문화간 경계가 사라진 요즘, 새로운 소재를 찾아 다양한 국가의 작품에 눈을 돌리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탄탄한 원작을 바탕으로

한 만큼 흥행실패 위험이 순수 창작물보다 적은 것도 리메이크작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인기를 토대로 만든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올해도 실화는 힘이 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개봉해 최종 723만명을 모은 '1987'을 비롯해 '암수살인' (379만명), '공작' (497만명) 등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남다른 감동과 울림을 주며 선택받았다.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다룬 '국가부도의 날'도 개봉 나올때 100만명을 돌파했다.

◇ 예상 밖 흥행 강자...임소문의 힘
올해는 반전 주인공이 된 영화가 제법 나왔다.

외국영화로는 참신하고 독특한 구성이 돋보인 '서치' (295만명)와 극장가를 때창으로 물들인 '보헤미안 랍소디' (575만명)가 대표적이다. 특히 '보헤미안 랍소디'는 지난 10월 31일 개봉했음에도 재관람 열풍을 일으키며 박스오피스 2위를 유지한다.

한국영화로는 '완벽한 타인' (519만명)과 '곤지암' (268만명), '마녀' (319만명) 등이 꼽힌다. 모두 비수기에 개봉해 색다른 소재와 장르를 앞세워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다.

임소문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대형배급사 관계자는 "외피보다는 본질을 보는 관객이 늘어나고 20~30대를 중심으로 임소문이 빨리 퍼진 덕분"이라며 "최근 몇 년 사이 관객 취향이 다양해지고 스펙트럼도 넓어지면서 옛것이고 타깃이 분명한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역력', '명당', '협상', '창궐', '물괴' 등 100억 원대 영화들은 흥행 실패를 봤다. 220여억원이 투입된 '안시상'은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는 데 그쳤다.

일부 작품은 개봉 시기가 한꺼번에 몰린 탓도 있지만, 스타와 외형에만 의존한 단일한 연출로 관객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점도 흥행 부진 요인으로 꼽힌다.

저예산 영화 가운데 탄탄한 시나리오를 갖춘 수작들은 주목을 받았다.

'죄많은 소녀' (김의석 감독), '살아남은 아이' (신동석), '소공녀' (전고은), '뉴티플 데이즈' (윤재호) 등은 모두 신인 감독들의 극영화 데뷔작으로, 한국영화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 여성 주연 영화·다양성 포용 영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신인 김다미가 여고생과 여전사를 오가며 연기한 '마녀'는 319만명을 불러모았다. 아동학대를 다룬 한 지만 주연 '미쓰백'은 개봉 당시 적은 상영관 수에도 임소문을 타고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미쓰백'을 좋아하는 사람을 뜻하는 '쓰백러'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화를 지지하며 단체관람 등의 활동을 펼쳤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벌인 법정투쟁을 다룬 '허스토리' 역시 마찬가지. 팬덤 '허스토리안'이 생기면서 단체관람 릴레이, 상영관 확대 운동 등이 펼쳐졌다.

'완벽한 타인'과 '보헤미안 랍소디'에는 동성애 코드가 등장하지만,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영화계 관계자는 "올해는 여성 중심 영화와 '블랙팬서'처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영화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면서 "특히 동성애 코드 등 기존 상업영화에서 보기 힘든 가치관들이 보다 수용적으로 반영된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 한국영화 해외 활약...미투 흥역도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올해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해 호평받았다. 비록 본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칸영화제 기술 부문 최고상에 해당하는 별관상(신점희 미술감독)과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진가를 발휘했다.

'남한산성' 김지용 촬영감독은 영화 촬영계 오스카라 불리는 '에너가 카메라마주'에서 최고상인 황금개구리상을 받았다. 아시아 영화가 이 상을 받기는 '남한산성'이 처음이다.

올해 한국영화계는 큰 별을 잃었다. 평생 스타이자 국민배우였던 신성일이 지난달 4일 새벽 지병으로 타계했다.

상반기 문화계 전반을 휩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은 영화계에도 번졌다. '천만요정'으로 불리던 오달수가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각종 영화에서 하차했다.

김기덕 감독과 그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배우 조재현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비난받았다. 조재현은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김 감독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수첩 제작진과 이 방송에 출연한 여배우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감독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영화 제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리틀 포레스트'



'신과함께-인고연'



'마녀'

김동률, 아이유와 협업 신곡 '동화' 내일 발표



싱어송라이터 김동률(사진)이 7일 오후 6시 아이유와 협업한 신곡 '동화'를 발표한다.

5일 소속사 뮤직팜에 따르면 '동화'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사운드에 김동률과 아이유의 하모니가 어우러진 노래다. 지난 1월 발표된 앨범 '담장'의 연장선에서 세 번째로 공개되는 싱글이다.

이날 공개된 45초짜리 티저 영상은 동화책의 한 페이지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시작되는 티저 영상은 눈 덮인 시골 동네와 산 사이로 흐르는 강 위에 잔잔히 지나가는 배가 담겼다. /연합뉴스

문 닫는 KBS 장수 프로그램 '1대100' 11년만에 폐지

KBS 2TV는 퀴즈쇼 '1대100'이 오는 18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11년 만에 종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7년 5월 처음 방송한 '1대100'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재미있는 퀴즈와 1명의 용기 있는 도전을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다. 제작진은 "'1대100'은 네덜란드 엔데볼사에서 제작한 퀴즈쇼 '1vs.100'의 판권을 사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이번엔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종영하게 됐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KBS는 최근 '콘서트7080', '뉴스라인' 등 예능과 보도 부문 장수-간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오늘밤 김제동'을 비롯한 새 프로그램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문지방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대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동행(재) 55 UHD 승터(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끝까지 사랑(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충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카드		25 헬로키키 동물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내 사랑 치유기(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뛰뛰빵빵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토크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15 타오르지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15 내 사랑 치유기(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KBC특집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건축물 남도에 살리리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오늘의 설록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승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대장금이 보고있다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05:30 통일 미리보기 <뒷동네 겨울 생존편>	12:00 EBS 정오뉴스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독도채널e(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10 장수의 비밀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다큐 시선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엠바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보카 폴리
08:45 말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09:30 원더볼츠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0:30 한국기행(재)	16:30 말랄라 뿌우(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영집때와 우영집때 북유럽편>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6일(음 10월 29일 壬申)	
	36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정치하게 다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48년생 분명히 기회는 주어진다 사실을 알라. 60년생 성의를 다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72년생 기존의 것을 지키는데 주력함이 현명하다. 84년생 예의 주시해야 할 바이다. 행운의 숫자 : 11, 83		42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 된다. 54년생 조짐이 보인다면 원천 봉쇄하는 것이 무방하다. 66년생 형세에 맞는 순발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78년생 이면에 숨어 있는 변수들까지 감안해야 안전한 것이다. 90년생 해결책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06
	37년생 경계망동 한다던 다 된 밤에 재 뿌린 격이 될 것이다. 49년생 재앙은 지극히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생기는 법이다. 61년생 변화를 갖는다면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73년생 굶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변동 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97, 13		43년생 계약 건에 있어서 특별한 행운이 따르는 호기로다. 55년생 의외의 이익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 67년생 생 반은 중요하다. 79년생 불면한 상황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쳐라. 91년생 추세에 영합하려 하지 말고 좇아들 가져라. 행운의 숫자 : 45, 78
	38년생 체면 따지다가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50년생 망심하지 말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62년생 망각한다면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다. 74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 될 것이다. 86년생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가 바람직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4, 20		44년생 발전의 주춧돌이 될 만한 길사가 생길 것이다. 56년생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68년생 악담 같은 없어도 덕담 같은 있느니라. 80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92년생 원래부터 타고난 몫이 다르니 상대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7, 42
	39년생 제반 요소들이 결집되어 활성화 단계에 이른다. 51년생 자신감 못지않게 침착성도 절실히 요청 된다. 63년생 예상 밖의 손실이 보이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75년생 미묘한 인간관계에 따른 고뇌가 보인다. 87년생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54		45년생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57년생 현상을 무시한다면 판도를 좌우할 만한 디딤돌을 잃게 될 것이다. 69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한다. 81년생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93년생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추이에 순응함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56, 46
	40년생 확실히 전환해 보자. 52년생 함심으로 판단해야 틀림없었다. 64년생 한정된 조건하에서 다양한 구상을 하느라고 고민하리라. 76년생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88년생 시종일관 빈틈없이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만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70, 03		34년생 지속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46년생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58년생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보라. 70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82년생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의 조성이 급선무이다. 행운의 숫자 : 59, 23
	41년생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53년생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65년생 필요하다면 소급해서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느니라. 77년생 불가피하다면 숙명으로 알고 수용하라. 89년생 장소의 선정보다 잘 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2, 18		35년생 의무를 다 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 47년생 확실한 목표의식과 동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59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갑자기 중단 될 수도 있다. 71년생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는 기회이다. 83년생 앞날이 원히 열리는 계기가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 : 83, 12